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공현 대축일

제34권 6호(가해) 2014.1.5

[묵상]



빛을 찾는 사람들...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이 되어야합니다.
아니, 새해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키는 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는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나'라는 별을 보고 갔다가,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라는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제대로 알려주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강한 빛을 내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분에 따라 강한 빛을 내거나,
아니면 빛을 전혀 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라는 별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행하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도 별의 지시대로 그분을 찾아 뵙고,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로이 동방박사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명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명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염교도 마리아 & 김봉태 바오로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보은 & 박세준 요셉
주 일 낮 미사	(연)신대진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김차욱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용식 베드로, 이광진, 이금순 마리아, 이병찬 & 황득주, 이종희 요셉, 이용관 베드로, 최근석 마리아, 심정연, 김애기, 이정희, 김분조, 소창영 & 소준주, 김승자 마리아, 홍정순 세실리아, 이영민 요셉, 김봉선 마리아, 전시웅 요한, 허동수 루스 & 허정자 레지나
	(생)이재정 사도요한, 김대우 비오 & 김숙희 심포로사 가정, 송미카엘 & 송미카엘라 가정, 박인경 베드로, 김수연 엘리사벳, 김기준 안젤라, 이정훈 안젤모 & 오희운 도미니카 &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 이유미 율리아, 노근웅 베드로, 서정진 요한 가정, 정열모 미카엘, 강인모 테오도시오 가정, 본당성가대원들, 사무실 봉사자들, 백삼위 공동체, 문임순 바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 이 당신을 경 배 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시니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시니이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3,2,3-5-6

복 음2 ○알렐루야.

환호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복 음 마태오(Matthew)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02	142	102
봉헌	409	267	310
성체	382	292	292
파견	377	102	146

올바른 성모신심

제3장 성모공경을 드러내는 기도와 성월

8) 목주기도 성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고 10월 7일은 '목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이다. 이 축일은 1572년 비오 5세 교황이 선포하였다. 이는 1571년 10월 7일에 있었던 터키와 치른 전쟁(레판토 해전)에서 성모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기념하여 15주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목주기도를 드리던 것을 한 달 동안 매일바친 데에서 유래한다.

비오 5세 교황은 1569년 목주기도의 기도문과 형식을 표준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목주기도의 교황'으로 불리는 레오 13세 교황은 1883년 9월에 회칙 「최상의 사도적 직무」에서, 목주기도 성월에 성당에서 공동으로 목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하였다.

바오로 6세 교황 역시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을 통하여 목주기도야말로 성무일도 다음으로 신자 가정의 '공동 기도'로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권장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2년 목주기도성월에 성년을 선포하고 이때 반포한 교서 「동정 마리아의 목주기도」에서 지난날 실천해 오던 '15주간 토요일 목주기도'를 상기시키며, 목주기도는 평화를 위한 기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모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목주기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는 관상 기도임을 밝혔다.

제4장 잘못된 성모 공경

성모 공경은 그리스도교 역사상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실행되어 왔다. 하지만 빗나간 성모 공경이나 신심도 없지 않았다.

1) 교부 시대

일찍이 교부 시대에도 한편으로 성모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부인하는 '성모 공경 반대자들'(antidicomarianiti)이 있었으며, 그와 반대로 성모 마리아를 여신(女神)처럼 모시는 '성모 흠숭자들'(colliridiani)이 있었다. 그러므로 살라미스의 주교 에피파니오는 이 두 가지 이단들과 대항하여 성모 마리아를 변호하는데 전력하였다. 그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면서도, 마리아께서는 여신이 아니시라는 점을 지적하며 하느님께 드려야 할 흠숭과 혼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에페소 공의회 이전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방인의 여신 퀴벨레 숭배자들과의 혼동을 염려하여 성모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Dei Genitrix)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네스토리우스(Nestorius)는 마리아께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 치릴로 주교가 항변하면서 대립이 치열해지자 에페소 공의회가 열렸다.

<◆계속>

새해의 소망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일 똑같이 뜨고 지는 태양이지만 연초에 바라보는 태양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의 소망이 담긴 마음으로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초에 일출을 보러 동해안으로 가곤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느님과 관계를 생각해 보며, 새해의 다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연초의 일출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악산 대청봉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산 정상에서 완벽한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캄캄한 새벽녘에 서서히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바다 저편에서 장엄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태양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감동이라기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대자연 앞에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저절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문득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느님을 뵈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탈출 3,5-6)

그것은 거룩함 즉 ‘성스러움’의 실제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아주 가끔 체험하는 하느님 체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느님 체험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절대자와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시도다’라는 말의 의미를 ‘당신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무력한 인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교회는 새해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주님 공현 대축일’로 지냅니다.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당신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실증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매일 만나는 자연과 사람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줄 알고, 하찮은 일에서 주님의 손길과 심오한 계획을 찾아내는 신앙의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난 그 아기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큰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보는 동방 박사들처럼, 주위의 미소한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을 초월의 세계로 끌어 올려, 절대자의 숨은 의도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초월의 세계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은 사물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과는 질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석 신부 / 서울대교구 노원성당 주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태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

오늘(1월5일)은 '주님 공헌 대축일'입니다
'주님 공헌 대축일'은 동방의 세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공적으로 드러납니다. 한국과 미국교회에서는 매년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개학

- 성탄과 송년, 새해맞이를 끝내고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주일(5일)부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해이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학생미사에 늦지않도록 준비합니다.

◆ 성모회 신년모임

- 일시 : 1월12일(주일) 낮미사 후
- 장소 : 강당
- 점심식사와 함께 신년인사를 나눕니다.
성모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 권순길 체첼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요셉회 설 맞이 잔치

- 일시 : 1월19일(주일) 낮미사 후
- 장소 : 강당
- 행사내용 : 율놀이, 제기차기, 노래자랑 등 다양한 놀이
- 푸짐한 상품과 기념품이 준비되어있음
- 부부동반 참석 환영
- 문의 : 정기은 비오 요셉회장 ☎(310)780-2789

◆ 주님 봉헌 축일 ...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오는 2월2일(주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

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30일(목)까지 성물부 김막달레나 또는 사무실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새해 본당 달력이 몇부 남지않았습니다.

- 아직 가져가지 않으신 교우들께선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배론 청년회 '새회원' 환영합니다.

- 대상 : 고등학교 졸업한 남녀 청년들
- 본당 토요특전미사가 청년들이 전례를 봉사하는 청년미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본당의 미래입니다.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청년회에 가입하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해 첫 오늘주일(5일) 친교자리 음식봉사 : 맛있는 잔치국수로 전신자들을 대접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잡수세요.☺

◆故이태석 신부 4주기 추모미사

- 일시 : 1월18일(토) 오전 10시30분
- 장소 :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2040 Artesia Bl.)
아프리카 후원회 이사장 김해원 가브리엘 신부
- 문의 : ☎(310)617-3110

◆ 음식물쓰레기를 성당밖 휴지통에 버립니다.

- 2층 각교실과 회의실, 강당 등에서 모임을 갖는 여러단체의 교우들(학생들)은 먹고난 음식물 찌꺼기나 음료수가 든 컵, 접시 등을 실내 휴지통에 버리지말고 옥외 쓰레기통을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선한 실내공기를 유지하는데 서로 협조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5일(주일) : 배론청년회(전신자에게 잔치국수 대접)
* 주일학교(9학년 김치찌개)
- 1월12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8학년 핫도그 & 칩)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구자운	김민석	김병태	김성현	김영길	김재희
	김주량	김찬구	김충섭	박근식	박봉성	박상준
	박의혜	박종열	박주현	반비오	변혜경	서영주
	송기철	안재만	오영섭	윤희동	이민상	이병찬
	이상곤	이상철	이인석	이일랑	이철우	익명
	정순석	조소영	조혜정	홍광선		
합계 : \$4,840						
주일미사 헌금 : \$2,695 성탄절 헌금(24/25) : \$3,854						
구유예물 : \$4,048						

성전헌금	구자운	김민석	김영길	김재희	김주량	김찬구
	김충섭	박봉성	박상준	박주현	반비오	변혜경
	안재만	오명섭	오영섭	윤희동	이민상	이병찬
	이상곤	이상철	이인석	이일랑	정순석	조소영
	조혜정	홍광선				
합계 : \$4,140						
감사헌금 : 신대식 황정숙 박이레네 오영섭						

- ◆ 한인가톨릭 청소년대회 도움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월4일(토)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서바이트 하이스쿨에서 FIAT재단과 KCRM 주관으로 열린 한인청소년가톨릭대회에 본당에서 학생 31명(8학년~12학년), 교사 16명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량봉사를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이인석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남가주 소식

-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사랑 피정'
- 일시 : 2014년 1월10일~12일(2박3일)
 - 주제 : "하느님의 사랑이신 성령" (사랑피정)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이상훈 요한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 대상 : 기도회원 & 일반신자 * 참가비 : \$100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 및 봉사회 총무담당 부회장 나 필립보 ☎(213)369-0173
- ◆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2014년 2월5일(수)~9일(주일)
 - 지도 : 조학균 예수회 신부
 - 장소 : Prince of Abby(650 Benet Hill Rd. Oceanside)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 ◆ '좋은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시즌4-발렌타인데이 스페셜 미혼 가톨릭 청년들의 유쾌상쾌통쾌한 만남의 자리! 신앙안에서의 좋은 인연의 시작!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일시 : 2014년 2월8일(토) 오후 5시
 - 대상 : 남자(84-74년생), 여자(86-74년생)
 - 장소 : 성 토마스 한인천주교회(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참가비 : \$80 *신청마감 : 1월26일(주일) 남녀 선착순 20명
 - 신청서 : www.stkcc.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 : 이창익 라파엘 ☎(858)880-8787
- ◆ '성령체험 수기' 공모 중
- 내용 : 남가주성령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 ◆ '커피와 신앙의 만남'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수익금용도 : 신자 비신자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쉼터조성, 가난한 이웃돕기
 - 문의 : 아그네스 성당 이나시오 카페 ☎(323)731-4433

노공동체 12월 반모임 안내

노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변혜경 올리아나 920-5253 1/11(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한창주 요아킴 213-276-3168 1/11(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0(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이병찬 안토니오 780-3258 1/17(금) 오후 7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윤성희 로사 710-8416 1/1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최기남 야고보 968-8280 1/24(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13(월) 오전 11시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김병태 요셉 999-1448 1/13(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1/11(토) 온천관광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1/10(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조혜란 엘리사벳 602-402-8518 1/17(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지영 프란치스코 818-1799 1/10(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오현희 콜롬바 617-3568 1/14(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넷째 왕이 몰려 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무작정 길을 떠난 축일입니다. 외로운 목동 때문에 베들레헴이 흥분에 싸였는데, 동방 박사들의 출현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넷째 왕의 전설>에서는 길을 떠난 사람들이 삼왕만이 아니라는 깊은 인상을 줍니다. 오늘도 외로움 중에 ‘별’을 보고 구세주를 찾는 이들이 곳곳에서 길을 떠납니다.

저는 피정집에서 소임을 하다가 수유리에 있는 ‘베드로 무료 식당’에 파견되어 ‘길 떠난 많은 왕’들을 만났습니다. 인계를 하는 수녀님께서 식당 재정이 어려우니, 새해부터 밥값을 500원씩 반자고 했습니다. 값게 생각해 준 수녀님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100명이 넘게 오던 분들이 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하는 내가 500원에 매달려 있다는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성주간에 다시 무료로 식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100명이 넘어, 150명이 오십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숙자만 오시면 좋으련만, 혼자 먹기 외롭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별을 따라 사랑이 있는 곳에 오시는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식사를 하시도록 꽃도 꽃고, 식탁보도 깔았습니다.

“비가 오는데, 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점심을 주고 고맙다니,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시면서 “잔치야,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이러한 잔치로 우리를 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젊은 남자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면 “내가 무슨 너의 어머니야? 수녀님이지.” 하고 고쳐 주었습니다. 또 점심을 먹고는 “성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저를 “어머니!”하고 부르며 “아이고 반가워라. 점심 잘 챙겨 먹어서 고마워.”하고 등을 두드려 주면서, 밝은 미소를 띄웁니다. 저는 이분들이 <넷째 왕의 전설>에 나오는 ‘넷째 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는 목이 부러진 천사인형을 가져오는가 하면, 또 머릿장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사인형은 식당에, 머릿장은 제 사무실 앞에 놓고 꽃도 꽃고 화분도 놓았더니 “어머니, 꼭 은혜 갚을게요!”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원하셨던 당신의 ‘식탁 선교(table mission)’를 ‘베드로 무료 식당’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20개월이 되었을 때, 갑자기 다른 곳으로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오래 이곳에서 살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소임이 바뀌어 떠난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보름을 미루다가 결국 떠나는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렇다는 말,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편한데 가게 되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분들은 마음 깊은 ‘넷째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6지구 신부님들과 지구장 본당인 수유동성당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삼왕이 오신 이날은 잔칫날이고, 삼왕을 맞은 베들레헴은 잔치이고, 사랑을 나누는 베드로 식당도 잔치입니다. 가난할수록 잔치가 맛이 있습니다.

◆홍성임 수녀 / 톡썩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서울수도원

‘성탄 대축일과’ ‘공현 대축일’은 어떻게 다른가요?

☞ ‘예수 성탄 대축일’과 ‘주님 공현 대축일’은 둘 다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를 고유한 주제로 삼고 있기에 같은 의미의 축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차이점을 든다면 ‘예수 성탄 대축일’은 가정 축제와 같이 하느님의 아들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셨다는 강생의 신비에 더 치중하고, ‘주님 공현 대축일’은 세계적 축일로써 이 아기의 신적 차원으로 눈을 돌려 주님이 세상에 밝게 나타나셨음에 더 치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 생활성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신앙생활에도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서 굳이 성당에 가지않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고해성사를 받거나, TV로도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참종을 뜻합니다.

☞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을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의 최첨단 통신 수단을 통해 직접 현장에 가 있는 듯이 안방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보게 되었습니다. 현대 문화는 이렇게 보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는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방관자가 되고, 화면으로 전해지는 사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미사를 참여 한다’보다는 ‘미사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하지만 성사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육화의 신비는 하느님의 인간의 삶에의 진정한 참여,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이런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성사’를 통해 우리가 보고 만지고 맛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또한 구원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배려하셨습니다. 교향의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마련하고 자녀들을 초대하였는데, 자녀들이 자신의 편리만을 생각하여 찾아오지도 않고 스마트폰 영상 통화로만 끝낸다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먼데서 그저 방관하지 말고,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권순호 신부 / 부산교구 주례성당 주임